

“사람살이 끈끈한 인간애 담았죠”

성보경 소설가 ‘첨단 칸타타빌라’
빌라 모티브 다양한 삶의 이야기
‘누구든 갑·을이 되는 현실 그려’



원룸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연작 소설로 형상화한 작품집이 발간됐다.

성보경 소설가(68·사진)가 펴낸 ‘첨단 칸타타빌라’(걷는사람)는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원룸 또는 빌라를 서사의 주 무대로 펼쳐진다.

일반적으로 ‘원룸’은 익명성을 특징으로 한다. 소설적 관점에서 ‘혼자 생활한다는 것’은 다분히 서사적 호기심을 환기한다.

성 작가는 지난 2013년 제5회 목포문학상 신인상을 수상하며 창작활동을 시작했다. 세 번째의 작품집인 이번 소설에서 그는 빌라를 모티브로 사람살이의 시시콜콜한 면모를 담아냈다.

성 작가는 18일 통화에서 “빌라에서 사는 원룸에서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서사의 중심”이라며 “화이자이 건물주인 ‘나’가 바라보는 세입자의 삶, 그리고 화자 자신의 삶, 나아가 관계성에 대한 내



용을 다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소설 속 인물들은 대부분 가난하며 월세도 제대로 못 내는 사람도 있다. 실제의 현실과 별반 다르지 않다”며 “누가 갑이고 을이라 할 수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누구든 갑이 될 수도, 을이 될 수도 있는 현실을 그렸다”고 덧붙였다.

문순태 소설가는 이번 작품집에 대해 “일곱 편의 소설은 첨단 칸타타 빌라에 입주하여 살고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풀어 나

가고 있다”며 “기난하고 외로운 삶 속에서도 끈끈한 인간애를 보여 주는 것”이라고 평했다.

성 작가의 고향은 경남 창녕이다. 그에 따르면 창녕에서 다섯 살까지, 그리고 마산에서 20년을 살았다. 광주에 정착한 것은 지난 82년 시집을 오면서다.

그는 “처음에 광주에 왔을 때만 해도 지역별이 정말 심했다. 제가 단지 경상도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로 설움을 많이 받았다. 정확히 말하면 경계인의 삶을 살았다”며 “그러나 살아보니 남도 사람들이 정도 있고 무엇보다 정의감이 많다는 것을 느꼈다. 가장 좋은 점은 음식이 진짜 맛있다는 사실이다. 제 입맛이 보통 까다로운데, 거의 모든 음식이 맛있었고 흉어도 정말 맛이 있었다”고 회고했다.

광주대 대학원 문창과 박사과정을 수료한 성 작가는 지금까지 소설집 ‘국민교육헌장’, 연작소설 ‘어쩌면 지금’을 펴냈다.

앞으로도 그는 “사람이 사는 집 같은 그런 소설을 쓰고 싶다”며 “우보천리(牛歩千里)라는 말이 있다. 조급할 것도 천천히 걷는다고 탓할 것도 없다. 묵묵히 내 보폭으로 걸을 뿐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지아 소설가는 이번 소설집에 대해 “사람 냄새가 그립다면 ‘첨단 칸타타 빌라’를 읽으시라. 거기 꿈틀꿈틀 살아 움직이는 사람들이 북적 북적 모여 살고 있을 테니”라고 평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땅끝 해남 인송문학촌 토문재 문체부장관상

2022년 개관…문화창작집필공간운영 평가 우수

땅끝 해남에 있는 인송문학촌 토문재(총장 박병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4개년 문학창작집필공간운영 우수 평가로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문체부 산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추천했다.

지난 2022년 개관한 인송문학촌은 2025년 12월 기준 국내외 작가 302명이 거쳐갔다. 2300평 부지에 전통 한옥으로 신축된 복합문화공간으로, 산과 바다를 조망할 수 있다. 땅끝이라는 상징성과 경치와 환경이 자리하고 있어 최적의 창작공간으로 평가받는다.

토문재 창작 공간은 모두 인솔실, 하우실, 난조실, 송정실, 국화실, 목련실, 인송정 등 7실과 토문재 북카페와 다목적 휴게실과 세미나실 등을 갖추고 있다.

총장인 박 작가는 “귀도 막고, 앞도 보지 못하고, 빙어리가 돼 살겠다며 유배지로 떠나는 심사로 귀향해 인문학 활성화를 위해 몰입하고 있다”며 “운영상 버거움도 없지 않지만 문학을 향한 길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고 싶어 문학촌을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개인적으로 박 작가는 올해 병오년은 장편소설 ‘귀향’을 독자들에게 내놓는 게 큰 숙제다.



영위원회 제반 운영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박 작가는 “창작에만 몰입할 수 있는 작가들이 많이 지원해 농어업인들의 일상 등 삶의 현장을 담아낼 수 있는 작품이 많이 창작됐으면 한다”며 “2월 중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3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인송문학촌토문재 참조.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우리집 현판 만들어봐요

북구문화의집 30일 청소년수련관

집의 이름을 짓고 새해의 안녕을 기원하는 특별한 체험이 마련됐다.

겨울방학 특집 프로그램 ‘우리집 현판 워크숍’이 오는 30일 오전 10시 북구청소년수련관 별관 2층 북구문화의집에서 열린다. 이번 프로그램은 가족의 뜻과 바람을 담은 문구나 이름을 정해 직접 현판을 만들어보는 체험형 워크숍이다.

현판은 건물의 의미나 거주자의 다짐을 담아내거나 목제 판자로 예로부터 집과 공간의 정체성을 상징해왔다.

이날 참가자들은 두 가지 목재를 섞어 제작하거나, 색색의 퍼티 틀과 다양한 소재를 활용해 자신만의 현판을 완성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입춘을 맞아 입춘방 만들기 체험도 진행된다. 24절기 중 첫 절기인 입춘에 글귀를 써 현관에 붙이면 봄과 복을 집안으로 들인다는 풍습을 체험해볼 수 있는 시간이다.

자세한 내용 및 신청 방법은 북구문화의집에 문의하면 된다.

북구문화의집 관계자는 “아이부터 어른까지 가족이 함께 참여하며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읽고 체험하고… 겨울방학 도서관에서 놀자

광산구립도서관 어린이·청소년 대상 체험 프로그램 풍성



첨단도서관에서 열린 지난 방학 프로그램의 모습.

〈광주 광산구 제공〉

함께 읽은 뒤 레터프레스 기법을 활용해 ‘나만의 꿈 달력’을 만드는 프로그램이다. 2월 7일까지 네 차례에 걸친 체험을 통해 아이들은 직접 만든 달력을 새해의 바람을 담아보는 시간을 갖게 된다.

첨단도서관에서는 2월 10일부터 12일까지 ‘인물로 만나는 삼국지’를 주제로 한 독서 체험이 열린다. 삼국지 속 주요 인물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내고, 읽기와 활동을 결합해 고전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아이들은 인물의 성격과 사건을 따라가며 자연스럽게 독서 흥미를 키우게 된다.

장덕도서관은 ‘케데현 속 역사, 문화’ 프로그램으로 어린이들을 맞는다. 인기 애니메이션을 소재로 삼아 작품에 등장하는 전통문화와 역사 요소를 살펴보고, 놀이와 토론을 통해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시간이다.

이야기꽃도서관에서는 새해를 맞아 자신의 꿈과 계획을 적어보는 창작 활동이 이어진다. ‘코끼리는 어디로 갔을까?’, ‘진짜 내 소원’ 등 그림책을

인트 등을 활용해 캐릭터를 디자인하는 등 디지털 창작 과정을 단계적으로 체험하게 된다.

프로그램 신청은 광산평생학습포털을 통해 가능하며, 일정과 세부 내용은 광산구 통합도서관 누리집과 각 도서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방학 동안 책 읽기와 창작, 디지털 체험을 함께 경험하며 아이들이 스스로 배우는 즐거움을 느끼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광주 송정역 ‘포용 디자인’ 입다

층간 높이 훨체어 사용자 고려… 다른 높이 안내센터도

지난해 열린 광주디자인비엔날레 프로그램 가운데 ‘광주 도시철도 포용디자인 프로젝트’는 디자이너들이 일상에서 구현된 대표적인 사례다. 포용 디자인에 바탕을 두고 재구성한 것으로 훨체어 사용자를 고려한 중간 높이 등 이용자 편의를 도모해 눈길을 끌었다.

최근 송정역에서 이번 프로젝트에 대한 개관식이 열렸다. 전시에서 제안된 디자인은 관계기관 협력을 토대로 송정역에 실제 적용됐는데 지역 디자이너와 디자인 전공 학생들이 포용 디자인에 입각해 반영했다.

휠체어 사용자를 고려한 중간 높이, 이용자 편의를 고려한 정보의 배치 등이 접목됐다. 또한 안내 표지판과 고객 안내센터는 다른 높이로 조성돼 사회적 약자의 접근 편리성 등을 고려했으며 ‘광주의 빛’을 모티브로 한 오렌지색 계통의 색체를

전반에 투영했다.

윤범모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는 “이번 사례는 광주디자인비엔날레가 전면에 내세운 포용디자인이 현실의 공간에서 구현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이번 프로젝트는 디자이너 실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분야라는 것을 보여주는 명징한 사례”라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DK 디케이 주식회사

공기의 새로운 정의 공간을 빛내는 선택

계절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건
우리 집 공기의 깨끗함입니다.
늘 깨끗한 집, 늘 건강한 숨.

모든 순간을 더 건강하게
디케이 공기청정기·살균기

www.e-dk.co.kr
판매 및 A/S 문의 1544-1154

